

I. 개요

1. 일시 : 2013. 7. 19 (금) 10:30~12:30

2. 장소 : KIEP 11층 회의실

3. 발표자(1) : Byung-Seong Min 교수(호주 Griffith 경영대학)

4. 제 목

- "Demand for International Higher Education and Its Impact on Bilateral Market Integration"

5. 참석자(11명)

김형주 박사	(LG경제연구원)
최윤식 연구위원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강유덕 팀장	(KIEP 국제경제실)
김종덕 박사	(KIEP 협력정책실)
오수현 박사	(KIEP 협력정책실)
선주연 박사	(KIEP 협력정책실)
이승래 박사	(KIEP 협력정책실)
김종혁 전문연구원	(KIEP 국제경제실)
고희채 전문연구원	(KIEP 국제경제실)
이시은 연구원	(KIEP 신흥지역연구센터)
박미숙 연구원	(KIEP 신흥지역연구센터)

II. 주요 발표 내용

- “국제 고등교육(International Higher Education)이 양자 간 시장 통합(bilateral market integration)에 미친 영향”에 대해 설명
 - 외국인 학생(international students)들의 호주 고등교육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살펴봄
 - 또한 시장 통합이 외국인 학생의 호주 유학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분석
 - 양국 간 재화 및 서비스 무역과 인적 자본 이동 사이의 관계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
- 고등교육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6가지 가설을 설정
 - 가설 1: 외국인 학생 가족의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외국인 학생의 호주 고등교육 수요가 높아짐.
 - 가설 2: 다른 교육 과정에 등록하는 것은 고등교육 수요를 증가시킴
 - o 특정 상품에 대한 어떤 사람의 수요가 다른 사람들의 수요에 의해 영향을 준다는 밴드웨건(bandwagon)¹⁾ 효과에 따라 영어 교육(Intensive English Learning) 프로그램이나 직업교육훈련(VAT;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프로그램 등은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됨.
 - 가설 3: 해외유학 비용이 높아질수록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는 감소함.
 - 가설 4: 교육의 질이 높아질수록 외국인 학생들의 고등교육 수요는 증가함.
 - 가설 5: 교육 수출(export of education)은 양국 간 무역을 증가시킴.
 - o 양국 간 네트워크 형성 등을 통해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과 탐색비용

1) 하비 라이벤스타인(Harvey Leibenstein)이 1950년에 발표한 네트워크효과(network effect)의 일종이다.

- (searching costs)을 줄일 수 있음.
- 가설 6: 양국 간 네트워크 형성은 학생을 보내는 국가로 부터 학생을 받아들이는 국가로 인적 자본의 이동을 증가시킴.
 - 추정 결과 호주로 유학온 학생들의 가족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남.
 - 1인당 소득이 10달러 늘어날 경우 호주의 고등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학생의 수는 68명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남.
 - 영어 교육(Intensive English Learning) 프로그램은 호주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 직업교육훈련(VAT) 프로그램과 중등학교(secondary school)도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직업교육훈련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유학생 가족의 소득수준 변수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해외유학 비용이 높아질수록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유학생 가족의 소득수준 변수를 포함할 경우 해외유학 비용과 관련된 변수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음.
 - 해외유학 비용(등록금, 항공운임, 생활비)을 추정하기 위하여 환율, 호주와 해당 유학생 출신 국가의 거리, 인플레이션이 대리변수(proxy variable)로 사용됨.
 - 환율과 인플레이션은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외국인 학생들의 호주 학교에 대한 평판(또는 교육의 질)이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음.

- 교육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대리변수로 전체 교수 가운데 연구 교수의 비율을 사용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교육 전담 교수의 비율을 사용할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각 대학의 연구실적(output)이 해외 유학생들의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의미함.
- 외국인 학생들의 호주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의 증가는 호주의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고등교육 변수는 추정 결과 호주의 총수출, 일차 상품(primary goods) 수출, 제조품 수출 모두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남.
 - 호주의 고등교육 수요의 증가로 인해 일차 상품 수출이 제조업 수출보다 3.4배나 더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호주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의 증가는 호주의 수입에도 영향을 미치나 제조품 수출에 대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음.
- 이는 호주의 일차 상품이 세계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음.
- 호주의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이민자 수도 함께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영어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이민자 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고등교육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직업교육훈련(VAT)과 이민자 수는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함.

III. 주요 토론 내용

- 호주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의 증가는 무역 활성화를 통해 양국 간 시장 통합을 가속화 할 뿐만 아니라 인적 자본의 이동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분석 대상을 호주 교육시장으로 한정했는데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영어사용 국가들의 교육정책도 영향을 줄 수 있음.
 - 영어사용 국가들의 교육환경이 개선될 경우 호주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가 수출과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고등교육과 거리가 서로 관련성이 있을 수 있음.
 - 고등교육과 거리 변수를 각각 하나만 사용하거나 두 변수간 상관관계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음.
 - 유학생 가족의 소득수준 변수와 해외유학 비용 변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은 흥미로운 결과임.
- 중국과 인도가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기간을 확장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
 - 본 보고서에 사용된 수출, 수입 데이터는 2002년부터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2002년 통계 기준이 바뀌어 2002년 이전 데이터를 함께 사용할 경우 연속성을 띄기 어렵기 때문임.
- 호주는 대학 과정에 등록된 외국인 학생의 비중이 영어를 사용하는 다른 국가들(미국, 캐나다, 영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통계분석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
 - 호주는 2004년 9%였던 외국인 학생이 2012년에는 24%로 증가

- 반면 영국, 캐나다, 미국은 각각 13%, 7%, 2%에 불과
- 호주에 있는 전체 외국인 학생 가운데 대학 과정에 등록된 학생의 비중은 60%
- 한호주 FTA 서비스 부문 중 교육시장에 대해 호주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교육시장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임.
- 세계 100대 대학에 호주는 미국, 영국에 이어 3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등록금, 생활비, 치안 등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경쟁력이 있음.
- 호주는 정규대학은 아니지만 고등교육 과정으로 편입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제도를 마련하고 있어 일단 호주로 들어온 유학생들이 호주에 남아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현재 호주에 있는 한국 유학생은 전체 유학생의 5.5%로 중국, 인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음.
- 호주는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서비스업의 비중이 매우 높고, 금융 부문의 경우 4대 상업은행이 모두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
- 특히 맥쿼리는 29개국에 진출하여 운용자산이 약 400조 원에 이를 정도로 글로벌 경쟁력이 있음.
- 호주는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바탕으로 에너지 관련 산업을 발달시켜 왔으나, 2012년부터 석탄, 철강 광산업자들에게 마이닝 택스(mining tax)를 부과하는 등 사회와 정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호주의 에너지 산업은 투자의 시차(time lag) 등의 요인에 따라 2014년까지는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철강 산업의 경우 점차 글로벌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으나, 정부가 철강 산업을 보호하고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 노동당이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및 분배를 강조하는 것은 길리아드 총리의 가난했던 과거와도 관련이 있다고 평가됨.
- 넓은 국토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적은 점도 해외진출 기업들이 호주로 진출하는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